



교육연합신문



2010년 1월 20일(수) 제 33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32-433-1633



학교탐방>>> 수원청명고등학교

16면

수원 청명고등학교(교장 김청국)는 지난 1998년 3월 개교해 이제 올해로 개교 13년을 맞는 '어린' 학교이다. '어린만큼' 아직은 옛된 티를 낼 법도 한데 그 행동이며 태도가 제법 의젓하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3면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해 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청연 인천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인터뷰

7면

인천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청연 의원은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인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맞벌이가정 유아 교과부, 맡길 곳 찾는다

3월부터 아간 돌봄 전담유치원 150개 시범운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월 14일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아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간 돌봄 전담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전국에서 150개원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운영 유치원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간 돌봄 기능이 크게 부족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제외된다. 전담유치원 지정 및 홍보는 오는 2월 경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전담유치원은 아간 돌봄 기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의 유치원으로 인근 공·사립유치원과 연계해 아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 먼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담유치원의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어린이집 유아도 전담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생활공방안'의 하나로 '아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담유치원이 있는 지역의 유아 돌봄 방식은 저녁 7시 이전에는 해당 유아들이 각 유치원에서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아간 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녀는 저녁 7시경부터 인근의 전담유치원으로 이동해 저녁 9시-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아간 돌봄 유치원으로서의 이동은 종일제 거점유치원 차량 또는 사립유치원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전담유치원 이용 대상은 공·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아도 이용할 수 있어 만3세-만5세 사이의 유아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담유치원에는 운영비, 보조 인력 경비 등을 지원하며, 저녁급식 및 간식비 등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이용료는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다.

지역별 전담유치원 현황, 운영 방식 등의 정보는 교과부,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담유치원 지정 및 홍보는 오는 2월 경 있을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시범 운영으로 약 3,000여 명의 유아에게 아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 확대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원석 기자
ws@eduyonhap.com

이 대통령 "일자리창출 적극 협력 필요"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일자리 부족 의식 공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은 정부가 할 역할도 있지만 그 몫은 역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여러분(재계)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를 통해 "금년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자는 기업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하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

고 본다"면서 "기업이 상황을 잘 분석해 결정하겠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러한 판단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달 열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잡 셰어링 제도'가 검토해 불만인 의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와 노사관계 선진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노사문화 선진

화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점진적으로 노사문화 선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고 확고한 생각을 갖고 해 나갈 것이며, 기업에서도 협력이 필요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관련, "해의 정상들이 잡 셰어링(Job Sharing)에 대해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잡 셰어링 제도'가 검토해 불만인 의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도 밝히면서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산업단지 토지제공도 내대지를

원형지 형태로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투자 촉진과 우리 기술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국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토지와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게 사실이어서 여러 형태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KT, 신입사원 다문화 가정환경개선 봉사활동 펼쳐

KT(회장 이석재)는 새해를 맞아 16일(토) 신입사원 300명이 경기도 남양주, 안산, 수원 지역 소재 다문화가정 40여 곳과 외국인 근로자 공장 10여곳을 방문해 집수리, 현직 음식만들기, 벽화 그리기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해부터 '나눔KT'를 경영 10대 실천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다문화 사회 지원 및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신입사원들이 다문화 이웃과 함께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에서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방학때 영어와 친구되세요"

서울 성북교육청 방학영어캠프 열어

서울 성북교육청(교육장 신입철)은 방학을 맞이 해 관내 모든 학교와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를 통해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열고 있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비롯해 방과후 영어거점 선도학교 3곳(김양초, 돈암초, 송중초)과 성북 거점영어 체험센터 4곳(송중초, 안양초, 삼양초, 석관초)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캠프는 특히 △ 약 5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 △ 원어민과 영어담당교사가 참여한 수준 높은 협력수업 △ 영어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업 중간 중간에는 간식과 중식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

린이들은 자유수강권 등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별로 10~15일 동안 열리고 있는 이번 캠프는 오전 4시간에 걸쳐 요리, 게임, 동화, 드라마 등 다양한 소재에 따라 교육청이 준비한 수업자료와 교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학교별로 40~80명씩 모두 약 1,500명의 어린이가 참가하고 있다.

한편 모두 4곳의 성북 거점영어 체험센터는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오후시간을 활용해 영어에세이반, 영어신문반, 파닉스반, 과학·수학·문화와 연계한 영어체험 학습반, 학부모 회화반 등 모두 80여개 과정을 열면서 1,200여 명



에게 영어몰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체험센터는 △ 15명 인원의 소규모 반 편성 △ 저렴한 비용(3만원 수준) △ 6개월 이상 장기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방과후 영어학습의 앞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청은 영어교육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업 장학팀을 구성해 각 학교의 영어캠프 원어민 수업을 지원하는 등 방과후학교와 영어공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양원석 기자 ws@eduyonhap.com

영어독서를 게임하듯 즐겁게~

리딩랩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독서프로그램 "전국 초등학교에서 인기"



ReadingLAB은 ERP (거점적 독서를 목적으로 독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 독서 촉진 프로그램)를 개발, 실시하는 영어 전문도서관입니다.

리딩랩은 독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독서촉진 프로그램인

ERP(Extensive Reading Program)를 통해 다량의 영어독서를 하게 함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미국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레벨 테스트를 실시, 학생의 레벨에 맞는 책을 선정해주고 책을 읽은 후에는 북테스트와 단어테스트를 통해 이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각 책마다 일정 포인트가 지정되어 있어 북테스트, 단어테스트를 80일 이상 통치한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영어도서를 게임하듯 즐겁게 계속 지속시켜 줍니다. 영어에 흥미가 없는 학생도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영어에 친숙하게 되고 자연히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의 레벨은 미국 초등학교 후반기에서 가운데에 비례로 글과 그림의 비중, 문장길이, 어휘의 수, 북 내용 등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분석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및상담문의: 031) 714 - 18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어항동 분당테크노파크 C동 710 (주)에듀랩